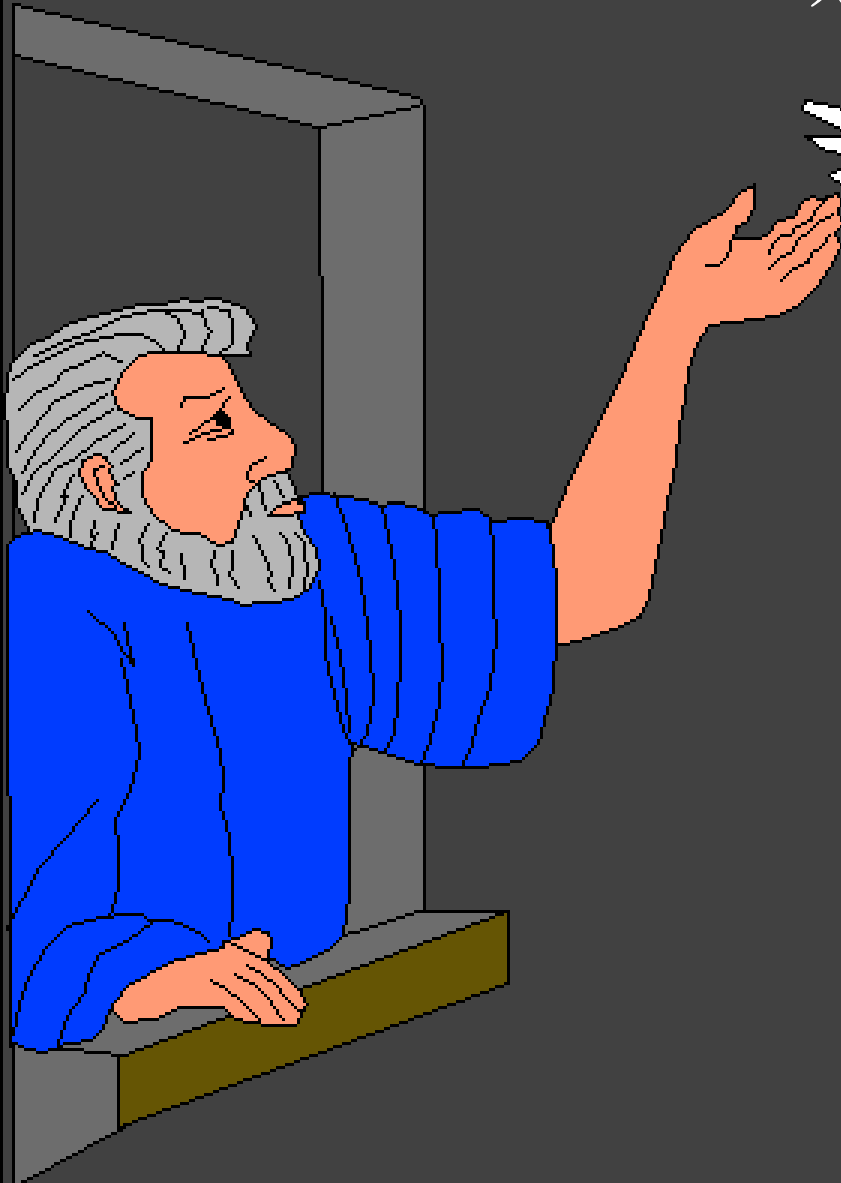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노아와 대홍수



저자: E. Duncan Hughes

삽화: Byron Unger, Lazarus

각색: M. Maillot, Tammy S.

번역: Eun Ji Shim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07 Bible for Children,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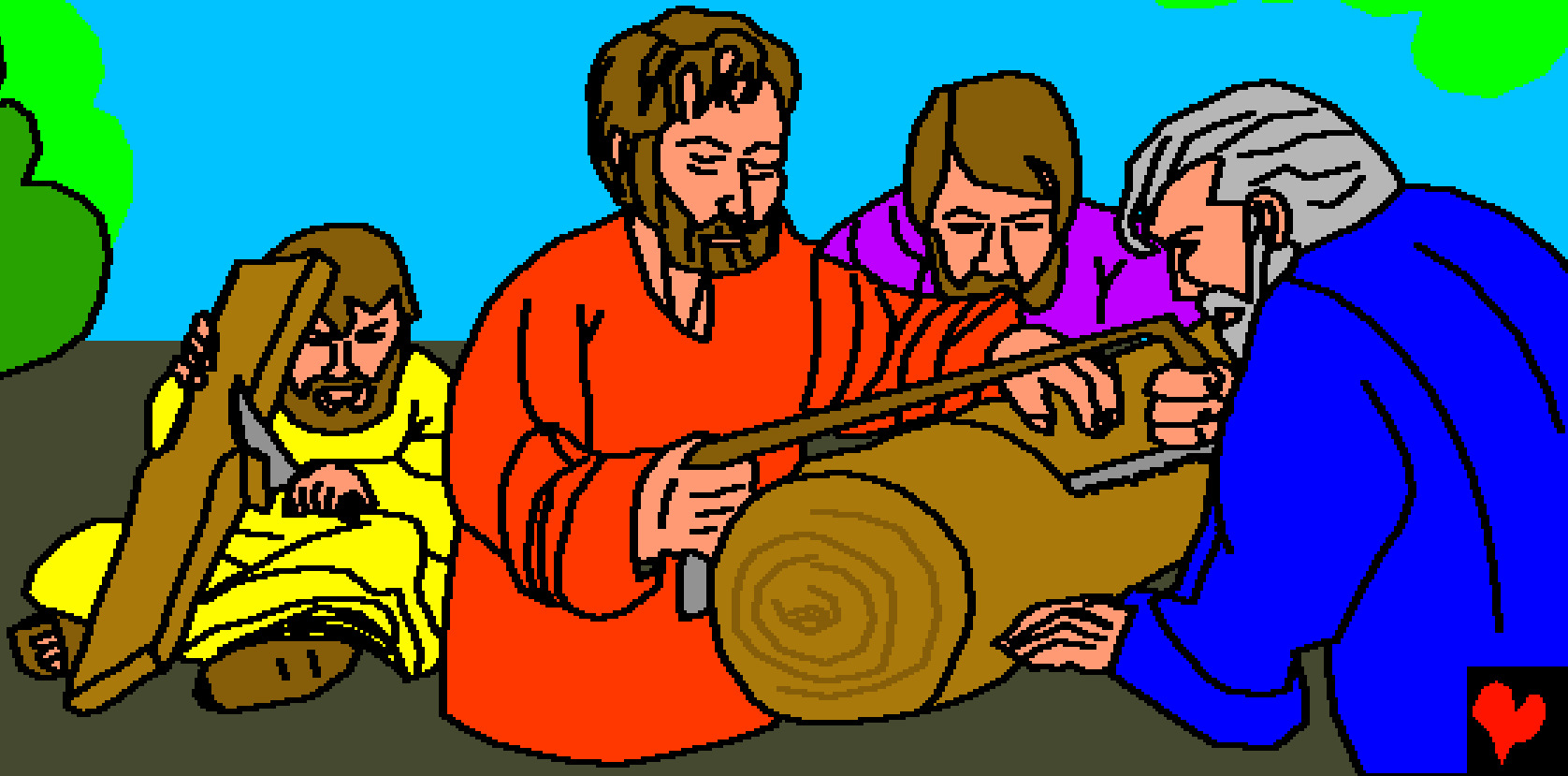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노아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불복종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나는 이 사악한 세계를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가족만이 구원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에게 대홍수가 와서 온 땅을 덮을 것이라고 경고 하셨다. “너의 가족과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기에 충분할 만큼 큰 나무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확한 지시를 하셨다. 노아는 일에 착수하였다.





사람들은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드는지
설명했을 때 아마 그를
무시 했을 것이다.

노아는 계속
방주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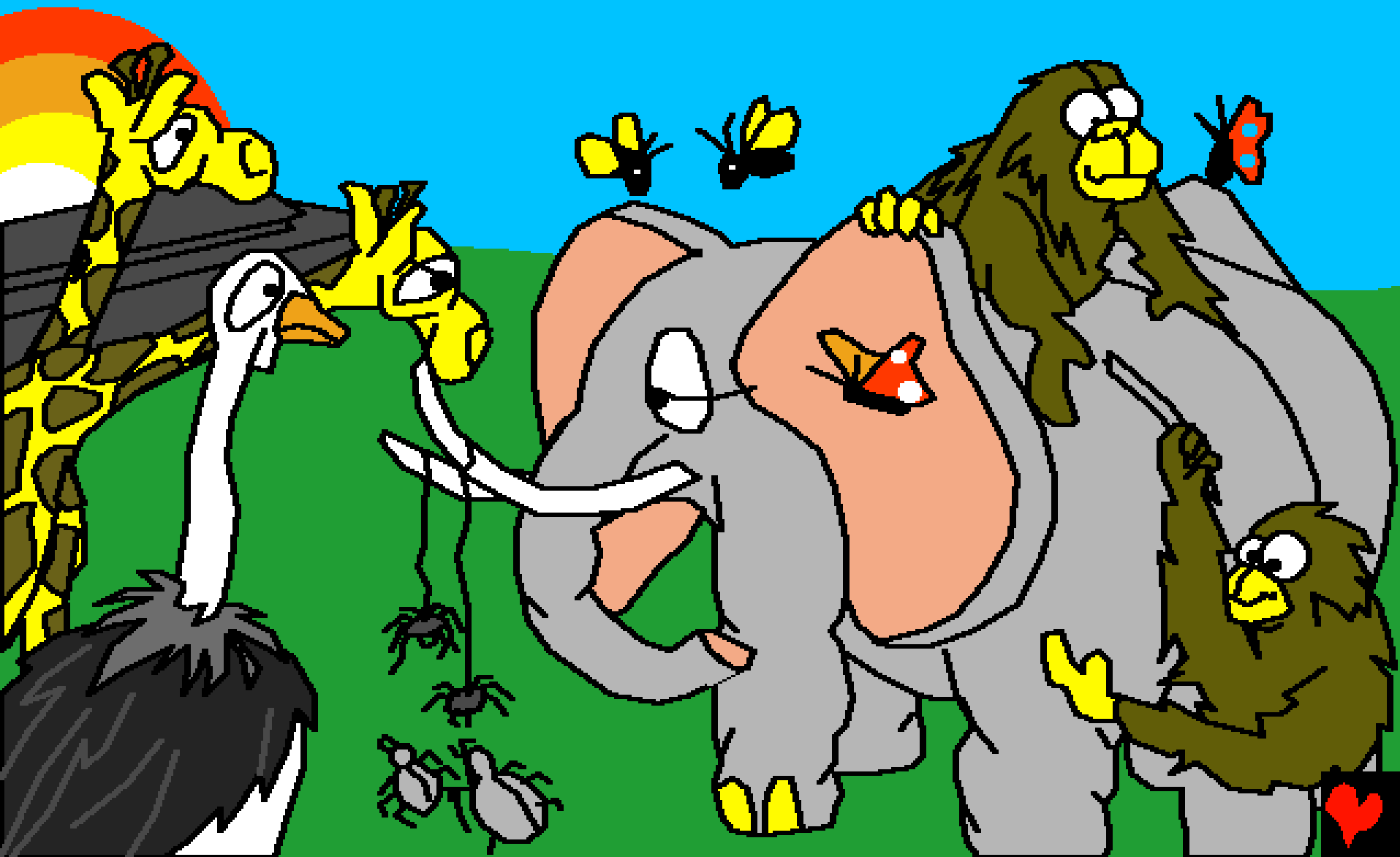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였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노아는 큰 믿음을 가졌다.
그 전에는 비가 한번도 오지
않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다. 곧 방주는 무엇이든
실을 준비가 되었다.



이제 동물들이 도착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들 중에서는
일곱씩을, 다른 종들 중에서는 둘씩을 데려오셨다. 크고
작은 새들, 키가 작고 큰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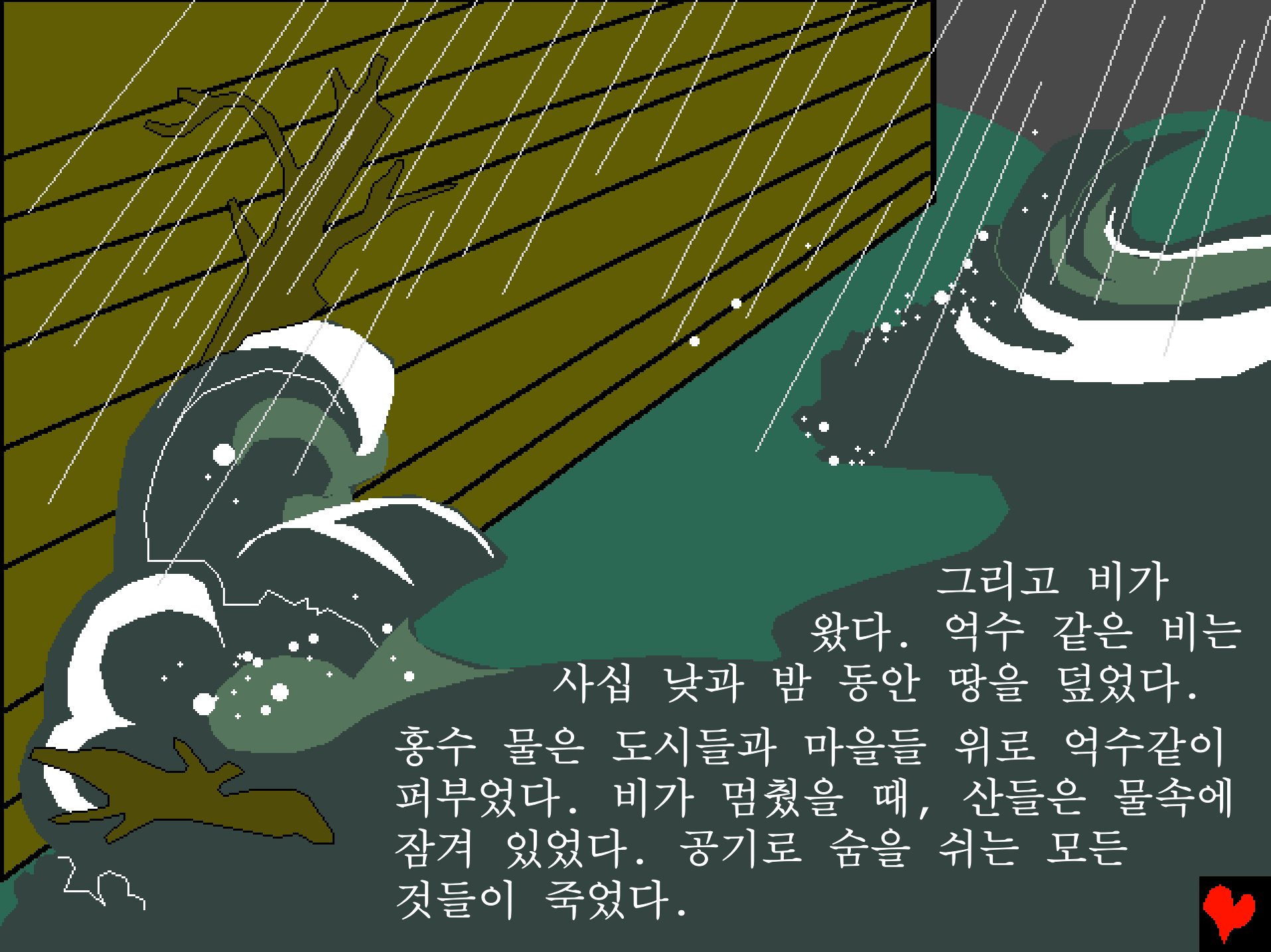
노아가 동물들을 실을 때 아마 사람들은
노아를 욕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 요청하지도 않았다.





드디어, 모든
동물들과 새들이
모두 방주에
탔다. "너와
너의 가족들
모두 방주로
들어오거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초대하셨다. 노아,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들은
방주에 올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그리고 비가
왔다. 억수 같은 비는
사십 낮과 밤 동안 땅을 덮었다.
홍수 물은 도시들과 마을들 위로 억수같이
퍼부었다. 비가 멈췄을 때, 산들은 물속에
잠겨 있었다. 공기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죽었다.



물 수위가 높아지자, 방주는 꼭대기에 떠올랐다. 아마 방주 안은 어둡고, 덜컹거리고, 무섭기까지 했을 것이다. 하지만 방주는 노아를 홍수에서 보호했다.



오 개월 동안의 홍수가 있는 후,
하나님께서서는 건조한 바람을 보내셨다.
천천히 방주는 아라라트의 높은
산맥에 쉬기 위해 도착했다. 노아는
물이 낮아질 때까지 또 다른 사십일
동안 방주 안에 머물렀다.



노아는 방주의 열린 창문 밖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냈다.
쉬 만한 마르고 깨끗한 장소를 찾지 못해 비둘기는
노아에게로 되돌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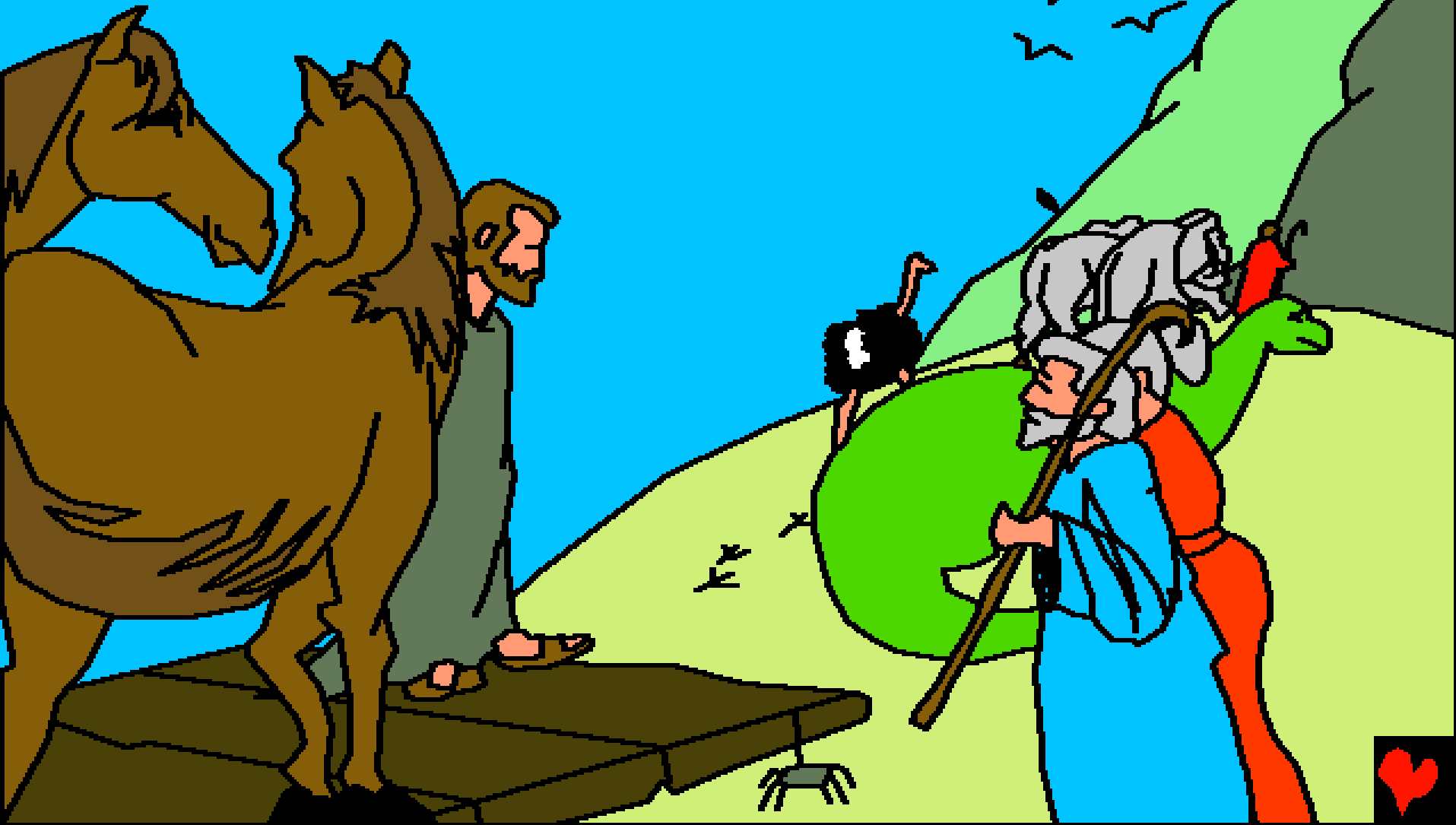




일주일 후 노아는 다시 시도했다. 비둘기는 부리에 새 올리브 잎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다음주에 노아는 비둘기가 되돌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가 말랐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함께 동물들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노아가 감사했을까!
그는 재단을 짓고 무서운
홍수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굉장한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는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호를 주셨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호였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 후에 새로운
시작을 찾았다. 시간이 지나,
온 땅은 그의 후손들로 다시
가득 차게 되었다. 모든
세계의 나라들은 노아와 그의
후손으로부터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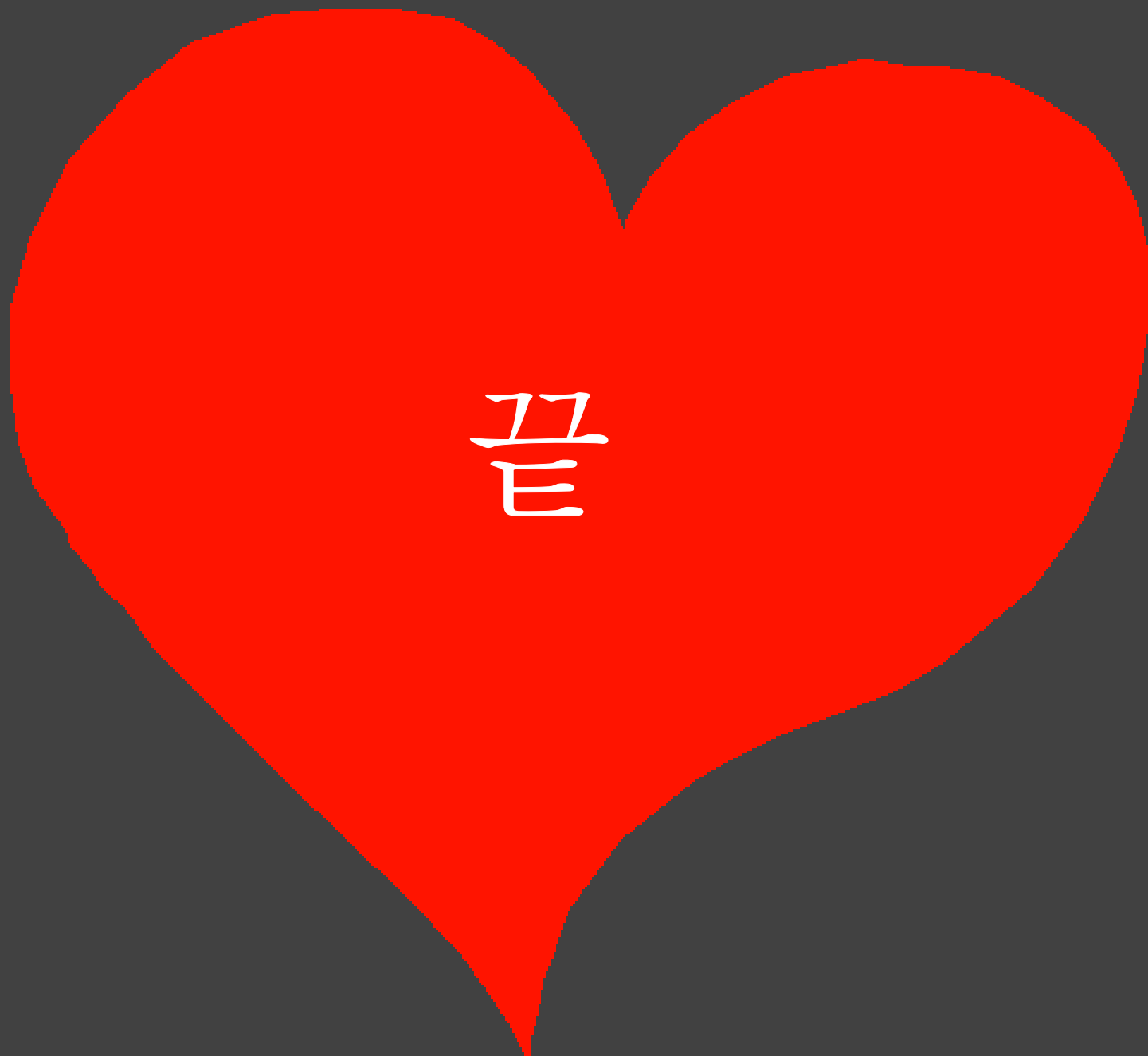
인간의 비애의 시작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10 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